오랜 인내가 신선한 열매를 만들어낸다

최학무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고성가족상담소 대표와 고성 삼산교회를 개척하여 32년째 섬기고 있다.

남해안의 숨겨진 땅, 고성군.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고성'을 말하면 대부분 강원도 고성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경남 고성'을 떠올리는 사람이 제법 많아졌다. 계기는 바로 '공룡발자국' 때문이었다고 한다.

비전이 보이지 않던 고성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학열 장로가 고성군에 군수로 부임해 오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기도하던 중에 당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고성에는 발견돼야 하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농촌 교회를 일구며 제자훈련을 성공시키고 있는 삼산교회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은 시골 중의 시골이다. 지금은 포장된 도로들이 대부분이지만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반나절을 족히 잡아야 갈 수 있을 정도로 험한 길이었다. 진주에서도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걸려 고성읍에 도착하고, 또 다시 삼산면으로 들어가는 차를 타고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 험준한 여정이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시골 마을에서 제자훈련의 꽃을 피우고 있는 교회가 있다. 바로 삼산교회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척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척박하기로 따지면 사랑의교회가 더 척박하지요. 서울 강남권이 목회하기가 보통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제자들을 길러내었기에 오늘날의 사랑의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 시골 교회 혹은 도시 교회 등을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름지기,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제자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토양을 일구어내어 열매를 만들어내었을 때 더 보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는 법이지요."

삼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학무 목사의 말이다. CAL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우리는 농촌 시골 교회라 제자훈련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들을 종종 남기는데, 삼산교회야말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모델 교회가 아닐까 한다. 바닷가가 보이는 농촌의 끝자락에서 보수적인 시골 사람들 몇몇을 전도하여 세웠던 삼산교회가 지금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를 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삼산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농촌의 영혼들을 보다

젊은 시절, 최학무 목사는 원래 서울 암사동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다. 78년도 후반부터 아파트가 한창 들어서던 그곳에 개척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천호대교를 건널 때마다 땅밟기를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목사로부터 고향인 남해 한려수도에 구경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가 그만 시골에 버려진 영혼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을 위해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삼산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단숨에 도시 개척의 꿈을 접고 농촌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다. 최 목사도 농촌 목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며칠을 기다렸던 제게 하나님의 사인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2장에 적힌 '아브라함의 약속'이 제 가슴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께 농촌 지역 목회의 '이삭'을 얻는 심정으로 25년을 섬기리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함부로 기도할 것이 못되더군요. 그냥 5년만 있겠다고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25년을 있겠다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곳에 머물고 있잖아요.(웃음)"

시골 땅속에 박힌 어려움들

도시를 접고 농촌을 택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나름대로 포부와 꿈을 가지고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꿈이 이뤄지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농촌 목회 특유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

제는 미리 준비하고 결단한 사람만이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다.

최 목사도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고작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심리적으로 회의가 들기도 했었다.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순진해서 더 잘 믿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도시나 시골이나 믿지 않으려는 습성은 동일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더 고집스러울지도 모른다.

농촌 목회의 어려움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수성에만 국한된 일일까?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시골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이다. 고성군 삼산면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법 사람들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소일하는 분위기다. 200명 이상 되던 초등학생도 이제는 고작 40여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보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농촌 목회자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다.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시골에 들어와서 목회를 한다지만, 그의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가장으로서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진다.

농촌 목회의 어려움들을 최 목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삼산교회에서 해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연 것이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함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다

"가족을 생각하고 젊은 시절의 앞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농촌에 올 수도, 머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스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심을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이곳에 정착했고, 그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의 목회를 만들었지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골 농촌 목회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다져진 최 목사만의 확신이다. 단순히 그가 구호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다. 최 목사의 목회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은혜의 흔적들이 속속 배어나온다. 농촌 목회의 어려움들을 최 목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건물구색을 갖추었을 때부터, 삼산교회에서는 해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문화를 향하여 어른들을 공경해야 함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삼산교회에 대한 그 마을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전통적인 시골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 으레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산교회는 교회신축을 할 당시 그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 탈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걱정해 주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애착관계가 형성되자 그 다음 단계로, 최 목사는 시골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전도대상자들을 찾아 나섰다. 시골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쉬러 온 사람들, 아니면 도회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농촌에 잠시 쉬러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다. 최 목사는 그들을 첫 번째 전도대상자로 찾아 나서기로 했다.

"주일이면 고향 교회로"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 봐야 서너 명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몸부림으로 인해 얻게 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다른 데 있었다. 이런 일이 최 목사로 하여금 농촌 목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찾도록 만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됐다. 그래서 최 목사는 농촌 목회의 가능성을 집에 있는 '다음 세대'에서 찾기로 하고, 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길러내더라도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 되면 그냥 학교를 따라 농촌을 떠나버리는 것이 큰 복병이었다. 최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유심히 관찰했다. '농촌을 떠남'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았다.

물론 그 아이들을 붙잡아줄 도심 교회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만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목사가 내세운 것이 바로 '주일이면 고향 교회로(Back to the hometown on Sundays)'라는 운동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모 교회가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대안이었다. 최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사실, 도시 교회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더군요. 왜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꼭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참석을 위해 아이들에게 차비까지 지원해 주지요. 그리고 주일마다 어른들과 더불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 예배의 영성에 적응시킵니다."

요즈음 같이 입시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을 주일마다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터지만, 최 목사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자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의외로 아이들은 교회의 방침을 잘 따라주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니까 오히려 부모들도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부서도 정착 분위기로 바뀌었다. 또 젊은 계층이 있으니까 신혼부부도 생겨나고, 장년층도 더 할 일이 생겼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자연히 또다시 새로운 자녀들도 태어났다.

이런 결과로 삼산교회는 지금 영아에서부터 주일학교, 청년부를 거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 계층이 존재한다. 인적이 드물어 적막감마저 들었던 시골에서, 영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일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하게 만드는 힘, 제자훈련

이로써 겉으로 보기에 제법 탄탄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영

유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고 배운다.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고 배우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대학생들을 보고 배운다. 이런 구조적인 모습에 대해서, 최 목사는 실질적으로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강조한다.

"우리 교회는 시골이라 부교역자도 잘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자훈련은 더더욱 절실해집니다. '먼저 된 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여 목회를 지탱해내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사실 농촌 목회의 특징은 삶과 신앙 간에 괴리감이 커서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신앙과 인격,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 목회에서는 '관계적 갈등'이 존재하기가 쉽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 보지만, 그 더딘 열매에 많은 목회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시골 사람들은 지도자 의존성이 강합니다. 목회자가 무언가를 할 때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한다"는 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삼산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70%나 된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각 파트별로 잘 돌아가다 보니 이제 부교역자가 없다 하더라도 힘에 부치지 않는다고 한다. 삼산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자훈련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가가 잘 훈련되어 있다. 생각들도 모두 긍정적이다 보니 삼산교회가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도 하면 한다"

처음부터 농촌에서의 제자훈련이 쉬웠을까?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 들어오는 농촌 사람들이기에, 말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나누는 이들의 모습이 얼핏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최 목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

"처음에 저도 '농촌에서 제자훈련이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첫 기수에서부터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주다 보니 큐티나 성경읽기 등도 거의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1기를 끝마친 뒤에, 훈련생들 스스로 제자훈련이 너무 미미했던 것 같다며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이왕에 하는 거면 '다시 제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시골 사람들도 '제자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괜히 겁을 먹고 안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로 작년에 끝마친 7기생은 정말 대단한 훈련생들입니다. 책 30권을 사다 놓고 큐티, 독서, 성경읽기 등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던지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동일하게 제자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제자훈련이 가능하다는 최 목사의 말이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 도심지의 방식과 양질의 차이가 약간 있어 보인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방학을 가질 수 없다. 바쁜 농번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한적한 시간에 훈련의 속도를 결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피하는 의미에서 10월 즈음에 시작해서 4, 5월 전에 끝내야 한다. 또한 과제의 질을 살펴보아도, 독후감인지 일기를 쓴 것인지 모를 때도 있다. 교재를 나누는 모임시간에도 자기 발표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맹이 아니라 삶을 깨우라

하지만 이런 차이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최 목사는 말한다. 그런 부수적인 문제보다도, 제자훈련은 '왜 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제자훈련도 목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평신도를 바르게 세우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숙제를 단순히 지식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지식인이 많은 '서울 강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문맹을 깨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농촌에서는 숙제가 조금 미비해도, 그것에 너무 치중하기보다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 격려해 주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 10권이라면, 농촌에서는 단 1권만이라도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삶으로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최 목사가 인도하는 제자훈련을 보면 매우 소박해 보인다. 그저 교재의 질문을 보고 느끼는 대로 우선 답을 쓰라고 한다. 그리고는 서로 답을 쓴 것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라고 말한다.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답을 비교하면서, 혹은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인도하고 있다.

어느 정도 나눔이 끝나면 인도자가 최종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소그룹의 역동성을 이끌고 있는 최 목사에게는 농촌에서의 제자훈련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에 대한 최 목사의 말이다.

"사실, 시골 사람들이 옥한흠 목사님 교재를 사용하는 문제도 처음에는 쉽지 않더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을 모두 어려워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농촌에서는 숙제가 조금 미비해도,
그것에 너무 치중하기보다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 격려해 주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
10권이라면, 농촌에서는 단 1권만이라도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들을 격려해 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쉬운 다른 교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교재를 만들라고 조언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옥한흠 목사님의 교재가 제자훈련을 하는 데에 충분히 큰 강점이 있기에 그 교재를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해서, 저는 교재의 대안을 찾기보다 지도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게 되었지요."

결국 농촌 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은 질적으로 다소 차원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최 목사는 말한다. 이런 그의 말 속에는, 제자훈련은 어디에서든 혹은 어떤 환경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녹아져 있다.

춤추게 하는 열매들

최 목사의 말을 뒷받침하듯, 삼산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이야기 속에는 제자훈련을 통한 열매의 달콤함이 과즙처럼 배어 나온다. 그들 중 몇몇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훈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말순 집사, 41세)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 믿음의 주소가 어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은 어둡고 듣는 귀는 막혀 있고 절름발이에 수박 겉만 핥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자 성도, 49세)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는 '거룩한 족쇄'를 찼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족쇄를 풀어버리고 나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알기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아기 신자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너무나 뜻깊고, 나의 신앙생활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미란 자매, 27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간증들로 인하여 제자훈련에서 배재되었던 계층이 서서히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바로 노인들이다.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영적 시샘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최 목사가 자신의 연구과제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제자훈련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요. 삼산교회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2, 30명 됩니다. 그분들은 제자훈련 받기에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제자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농촌에 있는 노인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상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일하던 노인들을 위해서도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구상해보고 있는 최 목사의 목회적 고민이 마냥 행복해 보인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제자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자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농촌에 있는 노인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상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다음 단계

농촌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방법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제자훈련의 다음 단계'에 관한 것이다. 훈련이 끝나고 난 뒤, 평신도 사역의 장이 없으면 제자훈련생 배출에 탄력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하여 최 목사는 몇 가지의 자구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첫 번째는 전도에로의 몰입이다.

"제자훈련을 마치면 당연히 '전도사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를 해야 새가족이 생기고 새가족이 생겨야 또 다른 제자훈련생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새가족 부서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제자훈련생도 생길 수가 없지요. 아직도 삼산면은 전체 인구의 90%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전도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단순히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 내적인 사역에만 국한해버리면, 이런 순환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는 어느 교회든지 강조되어야 할 일이지만, 삼산교회는 이를 제자훈련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마 28:19~20)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삼산교회는 시골 교회라고 해서 도시 교회의 지원으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근 들어 전도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매달 셋째 주일에 온 성도가 전도를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이다.

삼산교회의 섬김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마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노인들이다. 삼산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마을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점점 확대되어 군에서도 이 사역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농촌 교회에서도 사회를 위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산교회의 또 다른 섬김의 대상은 삼산교회와 비슷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농촌 목회자들이다. 삼산교회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농촌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삼산교회 자체적인 제자훈련을 넘어서, 초청한 목회자들에게 농촌에서의 제자훈련 필요성과 가능성, 그 방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세미나를 위해 새벽같이 나와서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 단순히 세미나 강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표정과 봉사, 헌신을 살피더군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저는 서슴없이 말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영향이라고 말입니다."

제자훈련의 결과는 '세계 선교'로도 이어진다

2년 전, 필리핀에 세워진 한 선교교회는 삼산교회의 기도의 산실이다. 어려운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을 모아서 6천만 원으로 현지 교회를 세웠다. 교인들 중에는 직접 현지에 가서 2달 동안 교회 현장에서 직접 지원을 한 적도 있다. 이런 선

농촌이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을 결코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숫자에 대한 생각을 25년 전에 버렸습니다. 주보에서도 그 숫자를 지워 버렸지요.

교 사역은 또다시 주일학교의 선교 씨앗으로 이어진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3년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도시 교회에서는 흔한 일이겠지만, 농촌에서의 이런 활동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장차 이런 시골에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리더들이 배출되지 않을까요? 한 예로, 중학교 때 단기 선교를 나가서 세계를 보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교여행을 갔다 온 후 의료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아이가 결국 의사자격증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지치고 힘든 사역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최 목사의 말을 듣노라면 넘치는 영적 에너지를 덩달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니까, 저 역시 날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목회를 해야지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도 항상 낮추어서 매번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농촌이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을 결코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저는 숫자에 대한 생각을 25년 전에 버렸습니다. 주보에서도 그 숫자를 지워 버렸지요. 어떠하든지 각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제자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숫자와 규모는 작아도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 그래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산교회는 농촌 교회이다. 하지만 그 활력은 시골 교회의 모습을 넘어 세계 교회가 되고 있다. 적막해 보이기만 하는 마을에서 주일만 되면 마치 평일에는 숨어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몰려나오는 교회, 소일하는 노인만 있을 법한 마을에 방학 때마다 도시에서 청년들이 찾아오거나 CCC의 거지전도팀 혹은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팀들이 탐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삼산교회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의 부으시는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교회는 단 한 가지의 차이점에서부터 비롯된다. 바로 화려한 질주의 시대에 발맞추어 빠르게 달리기만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할 것인가. 농촌 목회를 위해서는 삼산교회처럼 오직 오랜 인고의 아픔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것이 도시에서 맛보지 못하는 제자훈련의 신선한 열매를 얻어내는 비결이다.

〈박봉만 목사〉